



박은신 첫 우승 22일 경남 거제시 드비치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2회 대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우승자 박은신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PGA 제공

KCC, FA 최대어 이승현·허웅 영입

FA '빅6' 중 2명 영입...이정현·송교창 공백 최소화



프로농구 전주 KCC가 자유계약 (FA) 최대어 이승현(30)과 허웅(29)을 영입했다.

KCC는 23일 "FA를 통해 이승현과 허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승현과 허웅은 이번 시장에서 김선형(SK), 전성현(KGC인삼공사), 두경민(한국가스공사), 이정현(삼성)과 '빅6'로 평가받았다. 앞서 이정현은 KCC를 떠나 서울 삼성에 새롭게 등지를 했다.

이중 이승현을 최대어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지난 시즌 평균 13.5점 5.6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승현은 197cm의 포워드로 힘과 슈팅 능력이 좋다. 리바운드와 수비 등 갖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공헌도가 높아 여러 감독들이 제일 영입하고 싶은 선수로

꼽았다.

KCC는 베테랑 가드 이정현의 이적과 포워드 송교창의 군입대로 공백이 생겼지만 둘을 영입하며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KCC가 FA 시장의 '큰 손'답게 단단히 버리고 있었던 인상이다.

한편, 구단은 이날 두 선수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KCC 관계자는 "24일 공식 입단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의 계약을 공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KBL 공식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며 두 선수의 자제한 계약 조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사항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현과 허웅은 24일 오후 2시 서초동 KCC 본사에서 입단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뉴스1

표 첫 EPL 득점왕 손흥민 "어릴적 꿈 이뤄"

최종전서 22·23호골 폭발...살라와 공동 득점왕 토트넘, 리그 4위로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손흥민이 23일 0시(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를 손에 든 손흥민은 구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어릴 때 꿈을 이뤘다"며 "쉬운 기회를 놓쳤지만 가장 어려운

기회에서 (골을)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날 도왔다. (골든 부츠가) 정말 무겁다. 내겐 최고의 날"이라며 웃었다.

토트넘은 리그 최종 4위(승점 71)로 3시즌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했다.

손흥민은 "대단한 시즌이었다.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줬고, 그가 오기 전에 아무도 챔피언스리그에 갈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평점 8.72점을 부여한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도 "몇 차례 큰 기회를 놓친 것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통해서도 골을 넣고 싶었다. 동료들이 도왔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BBC는 최우수선수(MVP)로 손흥민을 선정했다.

풋볼런던도 손흥민에게 9점을 주며 "페널티킥 없이 득점에 올랐다"고 극찬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평점 8.7점을 매겼다. /뉴스1

'디펜딩 챔피언 전남' 부산교통공사와 16강전 맞대결

내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16강전



FA CUP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디펜딩 챔피언 전남드래곤즈가 부산교통공사를 홈으로 불러들여 16강전을 치른다.

전남은 2021 하나은행 FA CUP 결승 2차전에서 '원정 4골'을 터트리며 K리그2 소속 팀으로 최초 FA CUP 우승을 이뤄냈다. 전남은 작년 FA CUP에서 K리그1 강호인 수원 FC, 포항, 울산에게 승리하였고 결승

에서 대구에게 1차전에 0-1패 후 2차전 원정에서 4골을 성공시키며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4년만에 우승트로피를 탈환한 전남은 FA CUP 강자답게 팀 4번째 우승 기록을 남겼다.

전남과 부산교통공사는 작년 FA CUP 16강전에서도 맞대결 경합이 있다. 양팀은 치열한 경기력을 펼치며 연장전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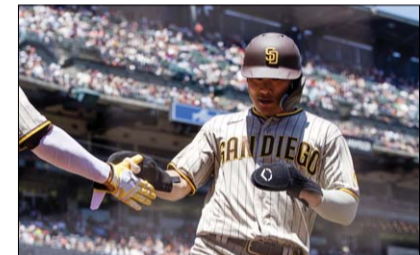
하면서 승부차기를 치렀다. 전남은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월 27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김포와의 32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김소웅, 이민우의 귀중한 득점으로 김포 FC에게 승리하며 하부리그 반란을 꿈꾸고 있다.

전남은 FA CUP 강자답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전경준 감독은 "전남이 잘하는 것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가니만큼 홈 팬들에게 승리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FA CUP 16강전 소감을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7시 수요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2022 하나은행 FA CUP 16강전은 전남드래곤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매를 할 수 있으며 현장매표도 운영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김하성, 공수 맹활약 일주일만에 멀티히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일주일만에 멀티히트도 기록하며 소속팀 샌디에이고의 대승에 보탬이 됐다.

김하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와 2루타를 포함 5타수 2안타에 타점과 득점을 하나씩 올렸다.

김하성의 타율은 0.21에서 0.222로 올랐고 샌디에이고는 10-1 대승을 거두며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을 모두 가져왔다. /광양=조순의 기자

중고채 사고팔면 골마켓 광주 일곡점

골마켓 광주 일곡점

각종브랜드 골프클럽/용품 판매

최고피팅 ◆ 최고시설 ◆ 최저가격

골마켓의 정교한 피팅 최신식 분석 장비 완비중 중고채 사고팔면

그립교환

클럽피팅

트로피 제작

골프볼 로고제작

중고채 보상판매

영업시간 AM 09:30 ~ PM 20:00

주말/공휴일 AM 09:00 ~ PM 19:00

062.575.5456

광주 북구 연양로 155